

제10주

한국어 모음의 발음 교육

□ 금주 학습활동

금주의 주요 학습활동(토론, 과제, 퀴즈 등)을 잊지 않도록 작성해두세요.

M . E . M . O

1. 한국어 모음 체계

1) 모음 체계

: 모어 화자들이 모음을 인지하고,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모음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어 발음 교육 담당 교사에게 한국어 모음 체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라 할 수 있다. 모음 체계를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가 모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또한 모음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면 학습자들의 발음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2) 한국어 모음의 분류 : 단모음, 이중모음

- (1) 단모음 :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으로 한국어의 단모음은 ‘ㅣ, ㅐ/ㅑ, ㅓ, ㅕ, ㅗ, ㅛ, ㅜ’ 모두 7개이다. (표준발음 규정에 의하면 한국어 단모음이 10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0개의 모음이 존재하지 않고 7개의 단모음만 존재한다.)
- (2) 이중모음 : 활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음으로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ㅗㅓ, ㅓㅗ, ㅕㅓ, ㅓㅕ, ㅗㅛ, ㅛㅗ, ㅜㅓ, ㅓㅜ, ㅛㅓ, ㅓㅛ’ 모두 10개이다. (표준발음 규정에 의하면 한국어 이중모음이 11개이나 현실에서는 ‘ㅛ’와 ‘ㅓ’가 구분되지 않고 ‘ㅛ’와 ‘ㅓ’가 구분되지 않으며, ‘ㅓ’는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이므로 결과적으로 10개가 된다.)
- (3) 삼중모음 : 한국어에는 음운적으로는 삼중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성적으로는 삼중모음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바뀌었어요’의 경

우 철자법에 따라 표기는 5음절로 하지만 발음은 [바꿨어요]로 한다. 이것은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축약되어 삼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이지 한국인의 모음 인지 체계에서는 이중모음 /기/와 모음 /니/가 따로 존재할 뿐이다.

3) 한국어의 단모음 체계

- (1) 표준발음법 규정 : 10모음 체계
- (2) 현실에서의 실제 모음 체계 : 7모음 체계

〈표 1〉 표준발음법 규정에 따른 한국어 단모음 체계

혀 위치 입술 모양 혀 높이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ㅊ	ㅡ	ㅜ
중모음	ㅔ	ㅝ	ㅑ	ㅛ
저모음	ㅐ		ㅓ	

〈표 2〉 현실 발음에 따른 한국어 단모음 체계

혀 위치 입술 모양 혀 높이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	ㅡ	ㅜ
중모음	ㅔ	*	ㅑ	ㅛ
저모음	*		ㅓ	

- (3) /기/와 /니/의 발음 : 표준발음법에서는 /기/와 /니/를 단모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어의 ‘ü’ 와 ‘ö’ 를 발음할 때와 같은 [y]와 [ø] 발음이다. 즉 /기/와 /니/를 표준발음법대로 발음하려면 입술을 동그랗게 한 상태에서 모음 /ㅣ/와 /ㅔ/를 발음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기/와 /니/를 발음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입모양을 유지하면서 발음하지 않는다. 즉 /기/를 발음할 때는 처음에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발음을 시작하지만 바로 입모양이 모음 /ㅣ/를 발음할 때의 입모양으로 바뀐다. /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사람들이 /니/를 발음할 때 입술을 동그랗게 한 상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만 입술을 동그랗게 모았다가 바로 모음 /ㅔ/를 발음하는 입모양

으로 바뀐다. 결국 표준발음법에서는 /ㄱ/와 /ㄴ/을 단모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는 것이다.

- (4) /ㄷ/와 /ㄹ/의 발음 : 표준발음법에서는 /ㄷ/와 /ㄹ/가 별개의 모음이라고 보고 있다. 즉 <표 1>에서 보듯이 /ㄷ/는 중모음, /ㄹ/는 저모음으로 /ㄹ/를 발음할 때가 /ㄷ/를 발음할 때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두 모음을 구별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ㄷ/와 /ㄹ/의 발음이 달라서 서로 다른 글자를 쓰게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ㄷ/와 /ㄹ/의 구별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4) 모음의 분류 기준

(1) 혀의 높낮이(개구도)에 따른 분류

: 고모음(폐모음), 중모음(반폐모음/반개모음), 저모음(개모음)

- 한국어 모음은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혀는 아래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혀를 높이려면 결국 입을 다물어야 하고, 혀의 높이를 낮추려면 입을 벌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혀의 높낮이는 곧 ‘개구도(開口度)’를 의미한다. 개구도에 따라 이름을 붙이면 고모음은 폐모음, 저모음은 개모음이라고 하며, 중모음은 반폐모음 혹은 반개모음이라고 한다.

(2) 혀의 전후 위치에 따른 분류 : 전설모음, 후설모음

- 한국어 모음은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설모음을 발음할 때는 혀뿌리 쪽을 수축해서 혀가 뒤로 살짝 당겨지도록 해서 발음을 한다. 학자에 따라 /ㅡ, ㅜ, ㅗ/를 중설모음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발음을 해 보면 /ㅡ/와 /ㅜ/는 입술 모양에는 차이가 있지만 혀가 당겨지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 : 평순모음, 원순모음

- 한국어 모음은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어의 경우 후설모음이 발달해 있어 후설모음들 간의 구별, 즉 /ㅡ/와 /ㅜ/의 구별, /ㅜ/와 /ㅗ/의 구별을 하기 위해서 /ㅜ/와 /ㅗ/를 발음할 때 원순성을 매우 강하게 해서 발음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ㅜ/와 /ㅗ/를 발음할 때 입술을 많이 내밀어서 발음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성도의 길이가 길어져 더 안에서 나는 소리라는 느낌을 주게 된다.

5) 이중모음 체계

- (1) 표준발음법 규정 : 이중모음 11개
- (2) 현실에서의 실제 이중모음의 수 : 10개

〈표 3〉 표준발음법 규정에 따른 한국어 이중모음 체계

	ㅣ	ㅔ	ㅚ	ㅓ	ㅕ	ㅡ	ㅜ	ㅛ	ㅜ	ㅟ
j계		ㅔ	ㅚ				ㅜ	ㅛ	ㅜ	ㅟ
w계		ㅔ	ㅚ				ㅜ	ㅛ		
ㅟ계	ㅓ									

〈표 4〉 현실 발음에 따른 한국어 이중모음 체계

	ㅣ	ㅔ	*	*	*	ㅡ	ㅜ	ㅛ	ㅜ	ㅟ
j계		ㅔ	*				ㅜ	ㅛ	ㅜ	ㅟ
w계	(ㅓ)	ㅔ	*				ㅜ	ㅛ		
ㅟ계	ㅓ									

- (3) 언어마다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활음이 앞에 오는 경우(상향 이중모음)도 있고, 활음이 뒤에 오는 경우(하향 이중모음)도 있다. 한국어는 활음이 앞에 있고 모음이 뒤에 오는 구조이다.
- (4) 한국어 활음(滑音, glide)의 종류 : /j/, /w/, /ɰ/
 - 활음 : 활음은 미끄러지는 음이라고 하여 활음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활음은 발음을 할 때 입 모양을 유지하는 시간이 없는 음으로 특정 발음을 하는 일정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바로 다음으로 전이되는 음이다.
 - 한국어에는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활음의 종류는 세 가지이다.
 - ① /j/ : /ㅣ/와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다. 같은 음가를 지닌 모음 /ㅣ/하고는 결합할 수 없다.
 - ② /w/ : /ㅟ/나 /ㅜ/와 같이 원순성을 가지고 있다. 원순성을 가진 모음 /ㅟ/와 /ㅜ/하고는 결합할 수 없다.
 - ③ /ɰ/ : /ㅡ/와 유사한 음가를 가지고 있으며, /ㅣ/ 외의 모음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 (5) 한국어의 무표 모음은 /ㅡ/로 /ㅡ/는 모든 활음과 결합하지 않는다.

- 무표 모음 : 음운 규칙이 적용되어 어떤 모음이 삽입하거나 탈락해야 할 때 선택되는 모음, 즉 모음 중 가장 무표적(無標的)인, 가장 약한 모음을 일컫는다. 무표 모음은 언어마다 다르다. (예: 일본어는 /u/, 스페인어는 /e/)
- 한국어의 경우 무표 모음 /ㅡ/는 모든 활음과 결합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6) /ㅐ/, /ㅔ/, /ㅚ/ ; 이 세 모음은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다. (예: 웬, 윈, 윈)

2. 한국어 모음 체계의 특성

- 1) 한국어 모음은 후설모음이 발달해 있다. 후설 쪽에 모음이 /ㅡ, ㅓ, ㅕ, ㅗ, ㅛ/ 5개나 몰려 있어서 학습자들이 이 모음을 구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 2) 한국어에는 후설 평순모음이 존재한다. 후설모음의 평순모음인 /ㅡ/, /ㅓ/가 존재하는 언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많이 어려워하는 발음이다.
- 3) 한국어에는 j계의 이중모음과 w계의 이중모음 외에도 ㅈ계의 이중모음이 있다.
- 4) 한국어의 무표 모음은 /ㅡ/이다.
- 5)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모두 상향 이중모음이다. 흔히 이중모음은 두 모음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모음 중 하나는 활음이 된다. 한국어의 경우 앞의 것이 활음으로 약한 소리로 발음되고 뒤에 오는 것은 모음으로 강하게 발음된다. 이처럼 뒤의 모음이 강하게 발음되는 것을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한국어에는 하향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한국어 모음 발음의 특성

1) 한국어의 특징적 모음

- (1) 후설 평순모음 /ㅡ/, /ㅓ/ : 후설모음의 평순모음이 존재하는 언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 (2) /ㅓ/, /ㅕ/의 강한 원순성 : 한국어의 /ㅕ/와 /ㅡ/는 고모음이면서 후설모음, /ㅓ/와 /ㅕ/는 중모음이면서 후설모음으로서 두 모음의 조음 위치

가 동일하다. 한국어의 경우 두 모음을 구별하기 위해 입술을 동그랗게 모으는 정도를 강하게 한다. 다른 여러 언어에도 /o/와 /u/ 모음이 존재하는데, 한국어처럼 이렇게 강한 원순성을 가진 언어는 별로 없다.

- (3) 이중모음 /ɨ/ : 모음 /ɨ/를 가진 언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중모음 /ɨ/가 존재하는 언어도 거의 없다.

4. 후설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의 조음적, 음향적 특성

1) 후설 평순모음의 조음적 특성

- (1) /ɨ/ : 혀 뿌리를 뒤로 당겨서 발음하되, 입술의 양쪽 끝을 아래로 내리는 느낌으로 발음한다. 이 때 입술이 돌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입술을 내밀지 않도록 교육하면 늘 내밀었던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 어려우므로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입술 모양이 ㄱ가 아니라 양쪽 끝이 내려간 ㅁ처럼 되어야 한다.)
- (2) /ɨ/ : 혀뿌리를 뒤로 당겨 발음하되, 같은 중모음인 /ɨ/를 발음할 때보다 입을

2) 후설 원순모음의 조음적 특성

- (1) /ʊ/ : 입술을 동그랗게 모은 상태에서 턱을 올려서 발음한다.
- (2) /ʊ/ : 입술을 동그랗게 모은 상태에서 턱을 아래로 내려서 발음한다.

3) 후설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의 음향적 특성

- (1) 원순모음 /ʊ, ʊ/ : 음높이가 낮고, 길이가 짧고, 강도가 약하다.
- (2) 평순모음 /ɨ, ɨ/ : 음높이가 높고, 길이가 길고, 강도가 강하다.
- (3) 원순 고모음 /ʊ/와 원순 중모음 /ʊ/의 차이
- 소리의 강도 : /ʊ/ > /ʊ/

5. /ɨ/의 조음적 특성

- 1) /ɨ/의 조음적 특성 : ‘ㅁ’가 활음으로 발음을 시작할 때의 입모양은 ‘ㅁ’이지만 ‘ㅁ’ 발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ㅁ’ 모음으로 이어진다.
- 2) /ɨ/의 3가지 발음 : [ɨ, ɨ, ɨ]
- ‘의사, 의자’와 같이 1음절에서, 선행 자음이 없을 때는 이중모음 [ɨ]

로 발음된다.

- ‘희망, 은혜’ 와 같이 자음 뒤에서는 [ㅣ]로 발음된다.
- ‘회의, 명의’ 와 같이 두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ㅣ]로 발음된다.
- ‘우리의 노래, 친구의 책’ 과 같이 소유격의 의미를 가질 때는 [ㅓ]로 발음된다.
- ‘의의’ 위 경우에는 [으이]로 발음된다.

6. 한국어 모음 발음의 지도 방법

1) 후설 평순, 원순 모음의 지도 방법

- (1) /ㅡ/와 /ㅓ/, /ㅕ/와 /ㅗ/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순모음 /ㅗ/와 /ㅓ/를 발음할 때는 입술을 최대한 오므려서 발음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ㅓ/와 /ㅗ/의 턱 높이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이들 발음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 (3) /ㅡ/는 혀를 뒤로 당겨서 발음하되 입술 양쪽 끝을 내리면서 발음하도록 유도한다.
- (4) /ㅕ/는 혀를 뒤로 당겨 발음하되 /ㅓ/를 발음할 때처럼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하도록 유도한다.

2) 이중모음의 발음 지도 방법

- (1) 이중모음은 활음과 모음의 결합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발음을 시작하는 입모양과 뒷부분의 입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 (2) /ㅟ/를 발음한다면 ‘이’를 발음할 때의 입모양에서 시작하지만 ‘이’라는 발음을 하지 말고 바로 ‘아’를 발음하도록 유도한다.